

홍콩 -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중국·일본과의 거래에서 건투

2008년 12월 말에 홍콩 신문은 “주장(珠江) 델타의(delta)의 홍콩계 기업 20%도 도산 우려(倒産 憂慮)·100만 명 거리로 내쫓길 수도.....”라고 보도하며, 경영 환경이 나빠지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주장 델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홍콩계 기업 약 6만개사(社) 중에서 20%의 기업이 조심스럽게 바꾸려는데 실패하면 도태될지도 모른다고 보도하였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100만 명 이상의 고용자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았다. 이곳 섬유 기업에도 뚜렷하게 미국 시장이나 구주(歐洲) 시장의 불황이 감돌고 있어, 이를 중국 시장으로의 내판(內販)으로 커버하면서 일본으로의 오더를 틈틈이 받아서 수출하면서 건투하고 있다.

홍콩 공업 총회(香港 工業 總會)는 2009년 초의 구정 연휴에 수주가 부족하여 공장을 열어도 할 일이 없어 일찍 쉬기 시작한 기업이 많았다. 예년이면 시무(始務)할 구정 5일에도 공장을 열지 않는 기업도 적지 않았던 것 같으며 3월이 되어서 겨우 돌리기 시작한 공장도 있었다.

화난(華南) 지구의 니터(knitter), 봉제 공장의 사정에 밝은 상사 관계자에 의하면 수주 상황(受注 狀況)은 공장마다 달랐다고 한다. 스포츠의 세계적인 메가 브랜드(mega brand)나 일본의 큰 캐주얼 전문점 체인(casual 專門店 chain)을 고객으로 두고 있는 대규모 섬유 공장은 구정 휴일을 5일만 한 후에 주당 4일 잔업(殘業)으로 수주를 처리하였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관리직을 리스트럭처링(restru : restructuring : 再構成)하거나 공장 워커(工場 worker)의 잔업 수당을 컷(cut)한 큰 섬유 기업도 있어, 기업

에 따라 명암이 갈라지며 이런 경향은 3월에도 계속되고 있다.

시장별로 수주 상황을 살펴보면 역시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 악화가 눈에 띈다. 월마트(Walmart)를 비롯한 저가격 지향의 소매점으로부터의 수주는 크게 줄지는 않은 것 같은데, 고감도의 어패럴이나 SPA계가 아무런 소리가 없지만 2009년 춘하물 수주(春夏物 受注)부터 불황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구주(歐洲)로는 유로권(euro圈)보다도 영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줄었고,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은 비교적 오르는 시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8년보다는 수요자들의 구매가 신중해졌다고 한다. “2009년의 수주는 미국이나 구주가 모두 전체로 보아서 2008년과 비교하여 적어도 20%까지는 감소할 것으로 보아야 한다. 최악의 경우에는 30%까지 감소할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들 미국과 구주 두 시장으로부터 수주가 줄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생산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중국 국내 판매용과 일본으로의 수출로 볼 수 있다. 화난 지구에 있는 대규모 섬유 기업에 대하여 중국 본토의 유력 어패럴이 상품을 발주하고 OEM으로 공급하는, 빨아올리는 방식이다. 일본계 상사도 중소 규모의 봉제 공장이나 니터(knitter)와 손을 잡고 화둥(華東) 지구의 중국 기업에 OEM 수주를 받게 하려는 기업도 적지 않다.

또한 ‘일본으로의 수출도 미국 시장이나 구주 시장의 불황과 비교하면 비교적 낮다.’고 하여 다시 화난 지구 공장으로 오더(order)가 들어오고 있다. 소 로트(小 lot)·단납기를 싫어하던 큰 기업 산하(傘下)의 중소 공장도 모기업의 도산이나 되돌아오지 않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주를 단념하고 일본 기업과 제휴하려는 기업도 적지 않아, 바로 이때를 놓치지 않고 화난 지구에서 생산 스페이스(生産 space)를 다시 구축하려는 일본 기업들은 우량 공장들을 먼저

차지하려고 나서고 있다.♣